
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■ 김지석 멘토링 복습자료

“짧은 시간 수능 수학 성적을 극한으로 올리는 방법”

Check-List

- ✓나의 수능수학이 중구난방처럼 느껴진다.
- ✓가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지만, 쉬운 문제를 틀린다.
- ✓문제를 풀 때, 개념을 적용하기가 벅차다.
- ✓원래 풀 던 수준의 문제는 풀 수 있지만,
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는 아무리 공부해도 손도 못댄다.

■ 왜 그럴까?

좁은 범위의 내신 수학과 넓은 범위의 수능 수학의 공부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.
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■ 증상 진단

내신 수학은 그래도 할만 했던 것 같은데, 유독 수능 모의고사 수학은 더 문제가 안 풀리고 막막하지 않은가요? 대다수 학생들은 두꺼운 개념서 한 권 골라서 내신 수학 공부했던 것처럼, **책에 나온 순서대로 첫 단원 기본개념을 공부하고 기초문제 → 중간문제 → 심화문제를 일일이 다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.**

책이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있다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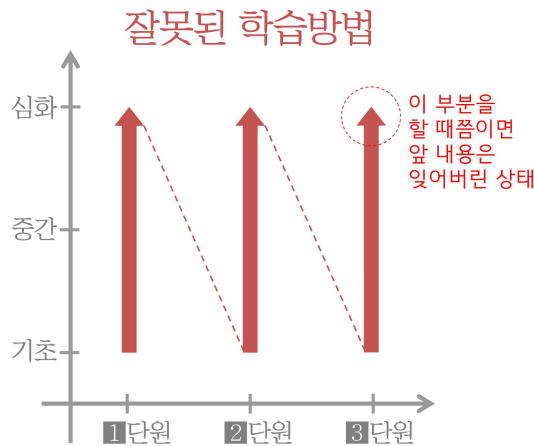
[1단원] 기초 → 중간 → 심화 문제까지 다 풀고,

[2단원] 기초 → 중간 → 심화 문제까지 다 풀고,

⋮

[9단원] 기초 → 중간 → 심화 문제까지 다 풉니다.

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내신 수학 공부할 때는 상관없었지만, 수능 수학 공부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의 제자님들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하시겠죠. 이게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부 방식일 겁니다. 99% 제가 맞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



문제는 내신 수학과는 달리 수능 수학은 범위가 넓어서 **이 방식대로 마지막 단원 공부할 때쯤이면 몇 달이 지나 있고 앞부분은 대부분 까먹는다는 겁니다.** 분명 꼼꼼하게 공부했는데, 시간이 오래 걸리니 까먹은 내용이 많아져서,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각 과목별로 3주 동안 학습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, 수(상)부터 선택과목까지 진도를 나가는 데만 무려 3달 반이 걸립니다. 수학(상)의 도형의 방정식의 내용이 가물가물해져서 4점 적분 문제를 잘 풀 수 없게 되는 거죠.
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아무리 공부해도 이 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니, 공부했던 문제인데도 시험에 나오면 못 풀니다. 책을 여러 번 다시 봐도 새롭고 낯섭니다. 해답을 보면 “아! 그렇구나!”하는데, 계속 “아! 그렇구나!” 이상으로 도무지 발전이 없습니다. 그저께 먹은 반찬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듯 계속 잊어버립니다. 공부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. 수학에 빵꾸가 생기니까, 자꾸 내 실력이 정체기가 온 것 같고, 수학 개념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, 문제를 풀때 개념을 적용하기가 벅잡니다. 원래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풀지만, 원래 못 푸는 수준의 문제는 계속 틀릴 뿐 딱히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

더 큰 문제는 다시 새롭게 열심히 한다고 변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. 악순환이 반복됩니다. 12월부터 3월까지 진도를 다시 나가도 까먹고, 3월부터 6월까지 진도를 다시 나가도 까먹고, 6월부터 9월까지 진도를 다시 나가도 까먹습니다.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범위조차 잘 커버해내지 못하는 느낌만 듭니다. 이렇게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갑니다.

■ 김지석t 솔루션

1. 증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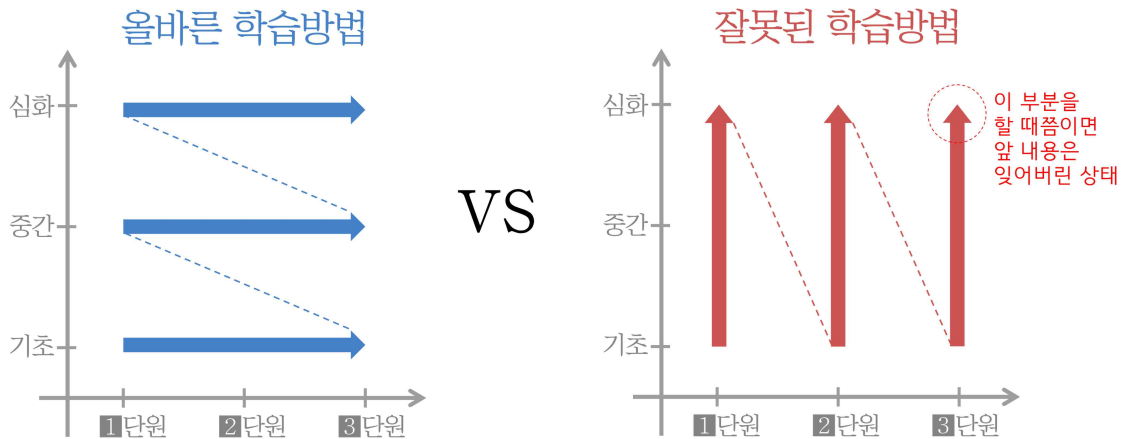
- (1) 개념서에 문제집에 강의까지 병행해서 한 단원씩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했지만, 앞부분 공부한 것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니 정리가 안 되서 멘붕이 오는 상태다.
- (2) 열심히 완벽하게 마스터하며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, 막상 여러 개념을 종합적으로 써야 하는 킬러 문제를 못 푼다.
- (3) 분명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 못 푼다. 유형을 열심히 훈련해서 익혔다 한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
- (5) 수학 상부터 시작해서 수2까지 왔는데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제대로 기억이 안나 수2가 점차 어렵고 버벅거리기만 한다.
- (6) 해설지를 보면 이해는 가지만 막상 내가 풀려니까 내 머릿속에서 도저히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.
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2. 증상에 대한 맞춤 해결



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단순합니다. 그것은 바로 **과감히 책(문제집)에 나온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.** 책에 있는 기본개념과 기초문제만 공부하고, 중간문제와 심화문제를 모두 건너뛰니다. 또한 같이 병행하던 보충문제집을 치워버립니다. 나중에 풀면 돼요. 걱정 말고 치우세요.

문제를 건너뛰고 오직 개념설명과 공식유도에 몰두하면, 고1 수학 맨 시작부분부터 고3 수학 맨 끝 부분까지 모든 개념을 정리하는데 1주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때도 앞부분이 기억나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.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어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. 수능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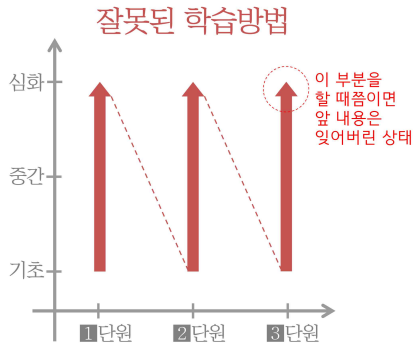
그 이후에 건너뛰었던 중간문제만 몰아서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심화문제만 몰아서 공부하면 됩니다.
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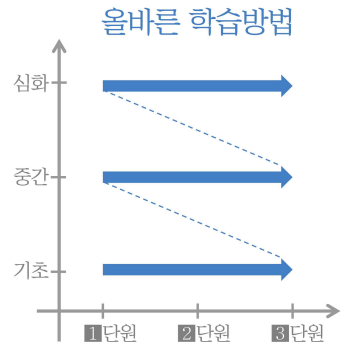
기존에 해왔던



방식으로는 진도를 한번밖에 못나가지만



제가 제시한



방식으로는 동일한 시간에 진도를 세 번 나갈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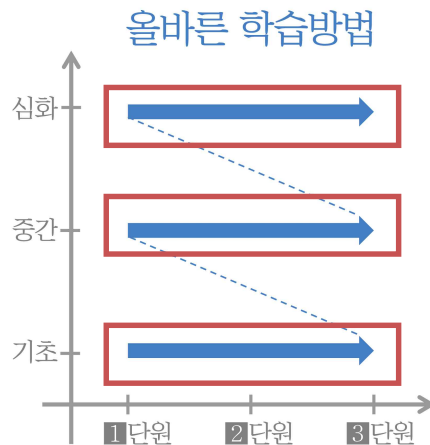
공부하는 순서만 바뀌어도 같은 시간에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. 효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

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어설픈 개념이 인과관계가 촘촘히 유기적으로 엮이게 됩니다. 별로 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생각이 만나 틀렸던 것이, 갑자기 모조리 풀립니다. 직접범위 간접 범위를 불과 며칠 전에 다 함께 봤으니, 변두리에 있는 간접 범위까지 활용되는 고난도 문제도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버퍼링 없이 모조리 풀 수 있게 됩니다. 여러 가지 공식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킬러문제도 공식의 연결 관계를 다 알고 있으므로 내 손으로 쉽게 엮어서 풀 수 있게 됩니다.

■개념 공부에 적용하기 : 전력질주 개념 독파 (7일) <수학의 단권화>



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<수학의 단권화>는 이 학습법으로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수능 수학은 전 범위 시험입니다. 전 범위 모두 생생하게 개념을 엮어 내어야 합니다. 우리가 그동안 내신 공부하던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면, 결코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. 더욱이, 수학의 단권화 수업을 다 마치면 여러분이 내 손으로 직접 쓴 나만의 <수학의 단권화> 개념 총정리 노트가 완성됩니다. 내 손으로 직접 썼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단 1일이면 고1 수학 맨 시작부분부터 고3 수학 맨 끝부분까지 모든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.

<수학의 단권화>를 시작하였다면, 누적복습으로 <수학의 단권화>를 읽기 복습을 해주세요. 개념서를 함께 계속 읽어주는 것을 병행해야,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형태의 문제들을 풀 수 있고, 나아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실력이 쌓입니다. 개념끝! 문풀 시작! 이 아니라, 문풀과 함께 개념서를 지속적으로 읽어주어야만 넓은 범위의 수능수학 전범위를 생생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

(2) 문제집 공부에 적용하기 <예, EBS 수능특강/기출문제집>

<EBS 수능특강>은 어느 문제집과 마찬가지로

- [1단원] 예제&유제 → 기초문제 → 기본문제 → 심화문제
- [2단원] 예제&유제 → 기초문제 → 기본문제 → 심화문제
- [3단원] 예제&유제 → 기초문제 → 기본문제 → 심화문제

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책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순서를 공부법에 적용시키면 아래와 같습니다.

- [1단원] 예제&유제 → [2단원] 예제&유제 → [3단원] 예제&유제
- [1단원] 기초문제 → [2단원] 기초문제 → [3단원] 기초문제
- [1단원] 기본문제 → [2단원] 기본문제 → [3단원] 기본문제
- [1단원] 심화문제 → [2단원] 심화문제 → [3단원] 심화문제

기출문제집/다른 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.

자신의 실력에 맞춰 문제집을 풀고, 본인의 실력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건너 뛰시길 바랍니다. (나중에 다시 풀면 되니까요!) 일단 어떤 문제집이든 시작을 했다면,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는 건너 뛰고 풀 수 있는 것들만 풀면서 문제집의 끝을 보세요. 그런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본인이 건너뛰었던 문제들을 격파해 나가면 됩니다.

학습법을 실제 공부에 적용하는 걸 <수학의 단권화>와 <EBS 수능특강>을 대표 예시로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. [개념+수능특강 EBS] 만으로 동일한 시간에 남들이 1회독을 할 시간에 우리는 4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기출에도, 실전연습에도 우리는 적용할 겁니다. 상상해 봅시다. 같은 시간을 공부하지만 남들 보다 몇 십회독을 더 하는 본인을 말이죠.

어떤 책으로 공부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명백하게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

**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공부 효율의 차원이 달라집니다.
그리고 성적이 오릅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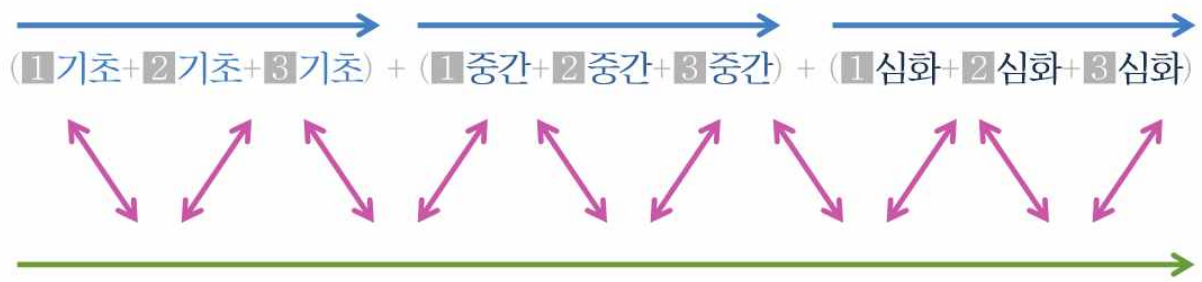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

진도빠기 필살기 비법과 수학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



개념서 회독 (수학의 단권화)

추천플랜 참고



KIMJISUK

“김지석의 필연성”

Recommended Week1 인강집중

✓.....

하루 평균 순공시간 8시간*일주일7일*수학 40% 공부량 =1344분
=하루평균 3시간 30분 기준

*진도교재: 수2뉴런+ 수학의 단권화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개념서 읽기복습+ 문물/인강교재 1주일동안 배웠던 거/ 풀었던 거 훑어보기 복습 새로운 진도x	인강 수강전 배웠던 부분 ①나만의개념서 회독(15분) ②인강 수강 (2시간) ③오늘 인강 마무리	①수학공부 전 첫 스텝 나만의 개념서 회독 *누적* (15분) ②전날복습 (30분!) ③인강 (2시간 30분) ④오늘 인강 마무리 (15분)	①수학공부 전 첫 스텝 나만의 개념서 회독 *누적* (15분) ②전날복습 (30분!) ③인강 (2시간 30분) ④오늘 인강 마무리	①수학공부 전 첫 스텝 나만의 개념서 회독 *누적* (15분) ②전날복습 (30분!) ③인강 (2시간 30분) ④오늘 인강 마무리	①수학공부 전 첫 스텝 나만의 개념서 회독 *누적* (15분) ②전날복습 (30분!) ③인강 (2시간 30분) ④오늘 인강 마무리	①수학공부 전 첫 스텝 나만의 개념서 회독 *누적* (15분) ②전날복습 (30분!) ③인강 (2시간 30분) ④오늘 인강 마무리

*인강집중기간 수학의 단권화 활용법

- ① 뉴런 진도(문물 진도)에 맞춰 꾸준히 해당부분 읽어주기! ▶ 해당 부분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은 개념 map을 참고하여 미리 읽어줄 것
- ② 까먹지 않기 위한 공부를 함께 해줘야, 내가 배운 것을 수능때 까지 들고 갈 수 있다!

Recommended Week2 문물 집중

✓.....

하루 평균 순공시간 8시간*일주일7일*수학 40% 공부량 =1344분
=하루평균 3시간 30분 기준

*문물 교재 + 수학의 단권화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*이번주 문물할 양과 진도 정하기 *문제 단위 x 시간 단위 o (∵ 다른과목 지칭x)	day1 문물 3시간 *문제별 수준이 다르니까 이날 다시 계획을 다시 수정해도 okay	day2 문물 2시간 30분 *개념서 읽기 복습 병행 (30분)	day3 문물 2시간 어제문물 복습 30분 *화요일날 읽었던 부분(15분) 수요일날 읽을 부분(15분)	day4 문물 2시간 00분 어제문물 복습 30분 *화(10분) 수(10분) 목(10분) 개념서 읽기 병행	day5 문물 2시간 어제문물 복습 30분 *화/수/목 개념Remind 테스트 진행 (*오래 생각x)	day 6 문물 2시간 00분 어제문물 복습 30분 *3일치 어제들린 개념 Remind 재시험

*문물집중기간 수학의 단권화 활용법 & 문물 집중 주간 주의사항

- ① 개념서 복습할 때, 무조건 읽으면서 복습! 쓰면서 복습하면 느려서 진도가 빨리 안나감 우리는 다회독이 중요하다.
- ② 개념 remind도 같이 읽어줘야함! 읽으면서 복습하면 루즈해지기 쉽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Remind하기
- ③ 문물 집중 주간에는 최대한 전범위를 읽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. [★수1+수2+선택과목 모두]
- ④ 처음 읽는 것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, 어제 읽었던 곳을 오늘 다시 읽어도 어제의 1/2도 안걸림** 누적복습이 중요
- ⑤ 문물 진도는 반드시 진도빼기 필수기에 기초하여 문물을 하고 있음에도 저절로 회독이 될 수 있게 하기! (기분⇒기분⇒기분⇒중간⇒중간⇒중간⇒중간⇒심화⇒심화⇒심화)

추천 플랜은 참고용일뿐 이러한 계획을 참고하여
본인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. :)